



자 조 금 소 식

2006년 양돈자조금 104억원 조성

도축두수 감소 불구, 정부배정 전액 활용 등 효율적 운용

2006년도 양돈자조금이 거출률이 93.4%를 기록하며 모두 104억원으로 조성됐다.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는 지난해 양돈자조금이 104억원으로 조성되고, 96억원을 집행하여 7억5천만원을 이월한다고 최종 집계했다.

이에 따라 양돈자조금 납입률은 93.4%를 기록, 출범 첫해인 지난 '04년 88%, '05년 92.2%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성공했다. 특히 올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도축두수로 인한 농가거출금의 감소로 예산절감 운용이 불가피했음에도 불구, 정부 배정액을 100% 지원받는데다 기존 사업계획 역시 큰 차질없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집행 전반에 걸쳐 '운용의 묘'를 잘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농가거출금이 48억9천1백만원(납입률 93.4%), 정부지원금이 48억원(100%), 전년도 이월금이 6억4천9백만원이며 기타예치금이자 등 1천5백만원으로 총 103억5천5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개된 양돈자조금 사업을 살펴보면 소비홍보 78억9천4백만원(예산대비 97% 집행)을 비롯해 교육 및 정보 제공 8억7천만원(84%) 조사연구 2억3백만원(58%) 징수수로 1억4천6백만원(66%) 운영관리 4억9천3백만원(88%) 등 총 96억5백만원으로 90.3%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관리위측은 올해에도 도축두수 감소로 인한 가용예산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 7억5천만원을 이월시켰다고 밝혔다.

고진각 관리위 사무국장은 "휴폐업으로 인해 84개소만이 운영되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 대부분 도축장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양돈협회 지부장 및 자조금 대의원들의 거출독려에 힘입어 납입률의 상승세를 이어갈수 있었다"며 "미납금에 대해 납입을 약속한 거출

금을 더하면 지난해 납입률은 94%를 무난히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양돈자조금 납입률 '순탄'

지난해 93.4%, 자조금 출범 이후 지속 상승세

양돈자조금 납입률이 지난해 93.4%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는 "양돈협회 지부장을 비롯하여 양돈자조금 지역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거출 독려로 납입률이 93.4%를 기록, 양돈자조금이 처음 출범한 2004년 납입률 83%, 2005년 92.2%에 이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납입이 약속된 거출금까지 더하면 94%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진각 양돈자조금 사무국장은 미납도축장 조치와 관련, 그동안 경영난으로 자조금을 장기체납하고 유용한 도축장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나, 도축장 관계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미납금을 납부하고 자조금 거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고소를 취하했으며 앞으로도 협조 의사를 분명히 하고 미납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직도 자조금 거출에 유일하게 협조하지 않고 있는 강원도 D도축장을 제외하고는 휴폐업으로 84여 개소만이 운영되고 있는 도축장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자조금거출에 힘써주는 도축장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으며, 소수의 부분거출을 하는 도축장의 경우에는 미납자 명단을 요청해 지역 대의원 및 양돈협회 지부를 통해 미납내역을 확인하는 등 농가를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조금 납입률 제고에 최선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는 지난 1월

10일 양재동 aT센터 소재 사무국에서 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올해 효율적 자조금사업 전개방향을 집중 모색했다.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 김건태 위원장과 김동환 부위원장, 진길부 부위원장 등 위원장단과 윤상익 · 이병모 감사 등은 양돈자조금 사무국에서 회의를 열고 축산물위생처리협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올해 자조금 납입률을 95%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양돈자조금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관리위원회를 개최, 자조금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산 돈육 저지방부위 학교급식 요리책자 발간

영양사 대상 요리법 전수교육도 실시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는 한국음식연구원에 개발 의뢰한 국산 돼지고기 저지방부위 학교급식 요리 30종을 수록한 요리책자 3천부를 제작, 발간했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요리들이 실제적으로 학교급식에서 활용되기 위해, 지난 1월 8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한국음식연구원에서 학교급식 영양사 대상 요리법 전수교육이 실시됐다.

이번 전수교육에는 수도권지역 초·중·고 및 특수학교 급식 영양사 50명이 참석했으며, 교육은 이번에 개발된 학교급식용 돼지고기 요리 5종의 제작시연 및 실습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포커스 등 유명주간지에 '돼지고기' 특별기획 기사 게재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는 지하철 무가지 포커스(Focus)와 주간동아 등 유명주간지 4곳에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과 관련한 기획 기사를 게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무가지 포커스에는 지난 12월 21일(목)부터 1월 2일(화)까지 총 7회에 걸쳐 돼지고기 관련 기획기사가 연재됐으며, 주간동아, 한경비즈니스, 시사저널, 이코노미21 등 2007년 신년호에도 국산 돼지고기의 우수성과 요리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소개되었다.

자조금 대의원수 배분 조정 필요

선출구별 자조금 대의원수의 배분에 있어 자조금을 납부하는 정도에 따라 대의원수도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양돈협회는 자조금법(축산물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선출구별 대의원 수 배분기준에서 현재의 배분기준은 축산업자수와 가축사육마리수의 비율을 5:5로 정하고 있으나, 가축사육마리수가 많은 지역의 농가들이 자조금을 많이 납부하는 만큼 그 대의원수도 많이 배분되어야 한다며 축산업자수와 가축사육마리수의 비율을 4:6 또는 3:7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의원 총수 또한 돼지의 경우 현행 200명으로 정하고 있으나, 축산업자수와 사육두수가 갈수록 줄고 있는 점을 감안, 대의원 총수를 150명 정도로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축사육두수 조사기준에 대해서는 사육두수 조사시 각 시·도의 최근 행정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므로, 축산업 등록제에 등록된 농가에게 선거권을 부여해도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돈**